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자료포털 레포트존

www.reportzone.co.kr



국어

2009년도 1학기 기말시험

핵심체크 및 출제예상문제



범위 : TV강의 전 범위

본 자료의 저작권은 reportzone.co.kr에 있습니다.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1부 고전의 세계

제2장 상고시대 문학

1. 공부도하가

공무도하(公無渡河) 임께서 강물을 건너지 마오.
공경도하(公竟渡河) 임께서는 끝내 강물을 건너시는군요.
타하이사(墮河而死) 드디어 강물에 빠져 죽으시네.
당내공하(當奈公河) 아, 임이여!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1) 의의

- ① 현전하는 최고(最古)의 서정시가
- ② 원시 고대문학의 집단적 서사시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시기의 작품
- ③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정서인 恨을 바탕으로 한 노래

(2) 명칭에 관한 설

- ① 공후인설: 최표의 「고금주(古今注)」, 채옹의 「금조(琴操)」 등에서 사용
- ② 공무도하가설: 현재 보편적인 명칭
- ③ 절충적 견해: 공후인, 공무도하가 둘 다 사용 가능하다는 견해

※ 공후인(箜篌引)에서 공후(箜篌)는 악기이름, 인(引)은 曲(노래)과 같은 뜻

(3) 작자에 관한 설

- ① 괘리자고 설: 채옹의 「금조」
- ② 여옥 설: 최표의 「고금주」
- ③ 백수광부의 처 설: 한치윤의 「해동역사(海東釋史)」 → 통설
- ④ 중국인 설: 중국 직예성 조선현에서 불려지던 상화가(相和歌)의 하나라는 설
- ⑤ 일정한 작가가 없는 민요라는 설
- ⑥ 절충적 견해
 - 1차적 작가: 백수광부의 처(최초의 작가)
 - 2차적 작가: 여옥(곡으로 널리 퍼트린 작가)
 - 3차적 작가: 중국 측 문인(노랫말을 한문으로 정확하게 기록한 작가)

(4) 작품해석

- ① 신화(神話)의 해석 ⊥ 백수광부: 디오니소스, 바쿠스 주신(酒神)
 - ↳ 처: 님프, 악신(樂神: 음악의 신)
- ② 무의(巫儀)의 해석 ⊥ 백수광부 ⊥ 미숙련 무부(巫夫), 초월주의자
 - | ↳ 박수(권위실추: 국가체제 확립 후 무당의 불신풍조를 반영)
 - ↳ 처 ⊥ 보통사람, 현실주의자
 - ↳ 처: 무당(굿노래가 가능한)

③ 서민문학으로의 해석: 남편을 잃은 아내의 슬픔을 극진하게 표현한 단순·소박한 서민문학(노래)일 뿐

④ 신화 + 전설의 복합체로의 해석

- 주술·신화세계에서 인간이 중심된 경험의 세계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생성
- 최초의 개인적 서정시 탄생의 한 단면을 제시

(5) 출전

중국의 최표가 쓴 「고금주(古今注)」에 실려 있었는데, 한치윤이 「해동역사」에 옮겨놓아 전해지게 됨

2. 단군신화

(1) 신화의 개요

- ① 개념: 우주의 생성, 국가나 민족의 기원, 인간의 생사문제 등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신이 개입된 이야기
- ② 주된 줄거리: 신이(神異)한 탄생 → 신성의 결혼 → 등극 → 사후의 이적
- ③ 구비문학(판소리, 무가, 민요, 설화, 가면극 등)의 한 분야

(2) 주요내용

- ① 위서에 단군왕검이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고 조선이라고 일컬음
- ②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올 때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360여 가지의 인간사를 주관하고 살면서 다스리고 교화함
- ③ 곰은 썩과 마늘을 먹고 37일 만에 여자의 몸이 됨
- ④ 단군은 나이 1908세만에 이사달에 산신이 됨

(3) 해석

- ① 통과제의(의례), 입사식(入社式)의 해석 - 고난을 통한 곰의 환인(換人)과정
↳ 춘향전, 심청전과 상통
- ② 곰의 성공, 범의 실패의 해석 - 동적(動的)인 것보다 정적(靜的)인 것 중시
↳ 영웅보다 덕을 갖춘 성인을 중시
↳ 물질문화보다 정신문화 수용
- ③ 인본주의 반영 - 홍익인간의 정신
↳ 신(환웅), 짐승(곰, 범) 등 모두가 인간화를 기원
- ④ 농경족 상징: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 등은 농경 불가결의 존재
- ⑤ 의의: 서사문학의 시원(始原)

<1부 2장 출제예상문제>

1. 다음 중 「공무도하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치윤의 「해동역사」에 실려 있다.
- ② 작자에 관해서는 여옥, 백수광부의 처, 광리자고 등 여러 설이 있다.
- ③ 배경설화에 등장하는 채옹(蔡翁)을 통해서 이 노래의 전파경로를 알 수 있다.
- ④ 배경설화에 보면, 백수광부의 처는 남편을 따라 물에 빠져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해설]

채옹(蔡邕)은 중국 한나라 사람으로 이 사람의 저서 「금조」에서는 공무도하가의 저자가 곽리자고로 되어 있으므로 채옹은 배경설화 인물이 아니다. 그리고 「공무도하가」의 전파 경로는 단지 중국의 최표(崔豹)가 쓴 「古今注」에 실려 있는 배경설화를 근거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정답] 3

2. 다음 「공무도하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중국의 최표가 쓴 「古今注」에 실려 있었는데, 한치윤이 「해동역사」에 옮겨놓아 전해지게 됐다.
- ② 작자의 이름이나 생몰연대가 밝혀지지 않은 어느 백수광부의 아내인 여옥이 지은 것으로 본다.
- ③ 여옥은 공후를 뜯으면서 이웃 여자 여용에게 가르쳐주어서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
- ④ 중국의 채옹이 지은 「금조」에는 작자가 곽리자고로 되어 있다.

[해설]

일차적 작자는 이름이나 생몰연대가 밝혀지지 않은 어느 백수광부의 아내가 지은 것으로 본다.

[정답] 2

3. 「공무도하가」의 배경설화에 등장하는 백수광부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 ① 주신(酒神) ② 미숙련 무부(巫夫)
- ③ 권위가 실추된 무당 ④ 무기력한 가장

[해설]

「공무도하가」의 설화를 신화로 보아 주인공을 주신(酒神)으로 보는 견해, 설화를 무의로 보아 미숙련 무부나 권위가 실추된 무당, 박수 등으로 보는 견해, 그리고 일반 서민문학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정답] 4

4. 다음 중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의 배경설화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과 관련이 제일 적은 것은?

- ① 신화(神話) ② 무의(巫儀)
- ③ 서민문학 ④ 중국인(中國人)

[해설]

공무도하가의 배경설화는 신화로 해석하거나, 무의로 해석하거나 단순 소박한 서민문학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정답] 4

5. 다음 중 단군신화와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 ① 통과제의(通過祭儀) ② 춘향전(春香傳)
- ③ 인본주의(人本主義) ④ 고금주(古今注)

[해설]

고금주는 진나라의 최표가 쓴 책으로 「공무도하가」가 그 배경설화와 함께 실려 있다.

[정답] 4

6. 단군신화가 상징하는 것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 ① 動 < 靜 ② 英雄 < 聖人
③ 물질문화 < 정신문화 ④ 현대문화 < 전통문화

[해설]

動보다는 靜을, 영웅보다는 성인을, 물질문화보다는 정신문화를 높이 평가하는 사상이 담겨 있다.

[정답] 4

7. 「단군신화」는 어떤 점에서 「춘향전」, 「심청전」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① 등장인물(또는 동물)이 통과의례(通過儀禮)를 치른다.
② 양자가 "동(動) < 정(靜)"의 사상
③ "영웅보다는 성인"을 높이 평가
④ 물질문화보다는 정신문화를 높이 산다.

[해설]

「단군신화」의 곰이 힘든 과정을 견딘 후에 사람이 되는 것, 「춘향전」의 춘향이 옥고를 치른 후에 이몽룡을 만나는 것,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진 후에 원님의 아내가 되는 것 등이 통과의례이다.

[정답] 1

8. 아래 내용 중에서 행위의 주체가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 ① 풍백 · 우사 · 운사를 거느리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② 하늘 아래에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을 내었다.
③ 우리 3천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신시를 열었다.
④ 도읍을 지금의 백악궁에 정하고 나라를 세워서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다.

[해설]

①②③ 환웅, ④ 단군왕검

[정답] 4

제3장 삼국시대 문학

1. 황조가

편편황조(翩翩黃鳥) 훨훨나는 저 꾀골새는,
자웅상(雌雄相依) 암놈 수놈이 께나 정답구나.
염아지독(念我之獨) 나의 마음 속 외로움이며,
수기여귀(誰其與歸) 누구와 함께 돌아갈거나.

(1) 의의

- ① 현전하는 최고(最古)의 개인적 서정시
- ② 가사가 전하는 고구려 유일의 가요
- ③ 집단적 서사문학에서 개인적 서정문학으로 이행되는 과도기적 작품

(2) 형성과정

- ① 우리말로 창작되어 구전 → 한자의 전래로 한역 → 「삼국사기」에 수록
- ② 「삼국사기」 기록 불신의견
 - 신화시대 인물의 서정시 창작은 불가능하다는 주장
 - 후대인이 창작하여 유리왕의 신화에 삽입했을 것이라는 주장

(4) 성격에 관한 설

- ① 서사시설: 중국 한족과 우리민족 간의 대결구도로 보는 견해
- ② 서정시설: 노래 내용 자체가 서정적(통설)
- ③ 계절적 제례의식에서 부른 사랑의 노래라는 설
- ④ 신화적 질서가 흔들리면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갈 조짐을 보이는 사랑 노래라는 설
- ⑤ 서정시 · 민요 · 민족고유요소로서의 성격을 고루 갖춘 노래라는 설

(3) 대상에 관한 설

- ① 차희설: 설화의 내용을 그대로 믿어서 차희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차희가 돌아오지 않으므로 안타까워서 지었다는 설
- ② 송씨설: 본문 [차희가 노해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왕이 일찍이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다]에서 '일찍이'라는 말은 차희가 도망친 그 때를 말하는 것으로 송씨가 죽었을 때를 말한다는 것
- ③ 막연한 연모의 대상설

2. 정음사

(전강: 前腔)	돌하 노피곰 도드샤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기야 어강도리
(소엽: 小葉)	아으 다롱디리.
(후강전: 後腔全)	저재 내려신고요. 어기야, 존 득를 드딴올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과편: 過篇)	어느이다 노코시라.
(김선조: 金善調)	어기야 내가는 덕 점그를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1) 의의

- ① 현재 전하고 있는 백제 유일의 가요
- ② 최고(最古)의 한글가요
- ③ 후렴구를 빼면 3장 6구체이므로 시조의 기원으로 보기도 함

(2) 시대에 대한 견해

- ① 백제의 노래설: '후강전(後腔全) 저재'로 본다면 쏘을 음악용어로 파악(백제 때 '전주'라는 지명×)
- ② 고려의 가요설: '후강(後腔) 전저재'로 본다면 쏘은 전주시장을 가리킴

(3) 내용에 대한 견해

1) 음사(淫詞), 은어(隱語)로 보는 견해

「정음사」는 「한림별곡」이 나왔던 고려 충렬왕대의 노래. 「한림별곡」은 귀족과 왕이 사치를 했던 시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가사도 음사, 음탕한 내용으로 은유해서 지었다는 견해

- ① 정음: 시정(市井)이나 상가(商街)의 뜻으로 비유(allegory: 은유)가 있는 말
- ② 존딕: 수령, 화류계
- ③ 내 가는 덕: 남근

2) 음사라는 견해에 대한 반론

- ① 정음(井邑): 「고려사악지(高麗史樂志)」에 '정음전주속현(井邑全州屬縣)'이라는 구절이 나오며, 망부석 전설 등으로 봐서 정음이란 말은 지명인 '정음'을 지칭
- ② 외설지사는 「정음사」만이 아니며, 가명(歌名)도 비유(allegory)로 된 것은 없음
- ③ 지나친 음사라면 조선 중종대까지 불려졌을 리×
 - 음사라 하여 중종 13년(1518년) 이후 국가행사에서는 폐기되었으나, 이후에도 계속 공연되고 불려짐
 - 허균의 시에도 등장
 - 정조 때 혜경궁 홍씨 수연잔치(1795년)에서도 불려짐
- ④ 순수한 부부간의 노래라는 견해

(4) 출전

가사가 「악학궤범」에 전해지고, 설화는 「고려사」, 「동국여지승람」에 전해짐

3. 조신몽설화

(1) 개요

- ① 문학의 본질(흥미, 교훈)에 접근
- ② 구성: 현실세계 → 입몽(入夢) → 몽중세계 → 각몽(覺夢) → 현실세계
- ③ 우리의 문학사상 수많은 설화가운데서 꿈을 소재로 한 것이 가장 처음이 아닌가 함
- ② 출전: 「삼국유사」

(2) 의의

- ① 몽유록계 문학의 효시: 설화, 고대소설(김만중의 「구운몽」), 현대소설(이광수의 「꿈」, 황순원의 「잃어버린 사람들」) 등에 영향을 미침
- ② 문학본질에 접근: 흥미와 교훈을 가지고 있어 문학본질에 접근한 작품
- ③ 현대소설에 비견: 인생무상이라는 주제를 추구하여 짜임새 있는 플롯으로 구성

<1부 3장 출제예상문제>

1. 삼국시대의 문학으로 고려조를 거쳐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궁중악으로 널리 불려진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① 원비었던 송씨가 돌아가자 그 슬픔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지었다는 주장도 있다.
 - ② 조선조 중종 때에 와서는 음란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로 폐기되었다.
 - ③ 문학성이 매우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를 받는데, 누이의 죽음을 애도한 추도시이다.
 - ④ 이 노래는 조선조에 와서는 남녀상열지사라고 하여 배척을 받았다.

[해설]

지문은 정읍사에 대한 설명이다.

- ① 황조가에 대한 설명, ③ 제망매가에 대한 설명,, ④ 쌍화점에 대한 설명,

[정답] 2

2. 다음 중 국문으로 표기되어 전하고 있는 시가 작품은?

- ①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② 황조가(黃鳥歌)
- ③ 정읍사(井邑詞) ④ 제망매가(祭亡妹歌)

[해설]

①, ②, ④ 한문(향가는 향찰)으로 표기되어 전해진다.

[정답] 3

3. 다음 중 백제의 옛 노래로 알려진 작품은 무엇인가?

- ① 한림별곡 ② 정읍사
- ③ 황조가 ④ 안심가

[해설]

현전하는 백제 유일의 노래는 정읍사이다.

[정답] 2

4. 「정읍사」는 백제(혹은 고려)의 노래로서 오랜 기간 불려지다가 조선 중종대에 와서 음탕하다는 이유로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결코 음탕하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하면서 제시한 이유가 아닌 것은?
- ① ‘정읍’부터 어떤 숨겨진 뜻(allegory)이 있다고 하나, 「고려사」악지에 나오는 ‘정읍전주속현(井邑全州屬縣)’이란 구절 등으로 보아 아무런 allegory가 없고 순수한 지명일 뿐이다.
 - ② 노래 중에 외설(猥褻)지사가 있다고 하지만, 외설로만 볼 것이 아니고 또 이는 「정읍사」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만전춘별사」나 「쌍화점」 등에도 있다.
 - ③ 노래가 그렇게 음사로 되었다면 수 백 년 뒤 중종 때까지 불려졌을 리 없다.
 - ④ ‘후강전(後腔全)저재’라는 구절을 ‘후강전’과 ‘저재’ 사이에서 띄어진 것으로 본다면 백제 노래가 되어 음사가 아니다.

[해설]

‘후강전(後腔全)저재’라는 구절을 ‘후강전/저재’ 또는 ‘후강/전저재’로 보는 것에 따라 작품이 백제 때 작품이냐 고려 때 작품이냐를 논하는 기준이 될 뿐, 이것이 음사냐 아니냐 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정답] 4

5. 「정읍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현전하는 유일한 백제 노래로 남편을 염려하는 아내의 마음이 드러난다.
 - ② 가사는 [악학궤범]에, 설화는 [고려사], [동국여지승람] 등에 전한다.
 - ③ 후렴을 뺀 기본 시행만 본다면 시조의 형식적 근원으로 볼 수 있다.
 - ④ 고려시대에는 궁중악으로 사용되지만, 조선의 건국과 동시에 궁중악에서 폐기된다.

[해설]

고려 때는 궁중무악으로, 조선조에서는 궁중악으로 쓰였다가 중종 때 와서 음란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로 폐기되었다.

[정답] 4

6. 「정읍사」 작품의 구절을 풀이한 것으로 옳은 것은?
- ① ‘전강’, ‘소엽’은 곡조를 표시하는 말이다.
 - ② ‘어강도리’, ‘다롱디리’는 문맥을 형성하는 시어들이다.
 - ③ ‘드디올세라’, ‘점그를세라’의 활용어미는 기원(祈願)의 뜻을 가진다.

④ ‘비취오시라’의 주체와 ‘노코시라’의 주체는 동일하다.

[해설]

② 별 뜻 없이 흥을 돋구는 소리(여음), ③ 활용어미는 의구형. “~할까 두렵다”는 뜻, ④ ‘비취오시라(비치소서)’의 주체는 달님이고, ‘노코시라(놀으십시오)’의 주체는 남편

[정답] 1

7. 「정읍사」를 음사(淫辭)로 보는 근거가 되는 어휘는 무엇인가?

- ① 즈 딘 ② 저재
- ③ 어느이다 ④ 점그롤세라

[해설]

‘즌 딘’는 ‘진 데’, ‘진 곳’ 즉 ‘수령물이 고인 곳’으로 해석되며, 이는 주색(酒色) 또는 화류향(花柳巷)을 비유한 것으로 풀이됨. ‘진 데를 디디면 어찌할꼬’하는 말은 표면상으로는 진데 곧 위험한 곳에 빠지면 어쩌나 하는 표현이지만, 사실은 ‘(수령과 같은) 주색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하는 속뜻을 내포

[정답] 1

8. 다음 조신몽 설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실려 전한다.
- ② 꿈을 매개로 하여 사건을 전개해 나간다.
- ③ 이 설화의 내용을 고사성어(故事成語)로 표현하면 ‘일장춘몽(一場春夢)’ 이라고 말할 수 있다.
- ④ 이 설화는 나말여초에 생겨난 전기문학(傳奇文學)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

[해설]

「삼국유사」에 실려 전함

[정답] 1

9. 조신몽설화가 문학 본질에 접근, 현대소설에 비견될 수 있다고 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① 짜임새 있는 구성과 일관성 있는 주제 추구
- ② 탄탄한 구성과 공사상(空思想)의 구현
- ③ 현실성 있는 배경 설정과 교훈적 주제 추구
- ④ 인생무상의 교훈적 주제와 등장인물들의 현실성 구현

[해설]

조신몽설화는 고대설화(소설) 중에서도 구성의 짜임새와 주제 추구의 일관성이 돋보이는 작품

[정답] 1